

4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계속 정체

8 >> 아이스하키팀 사실상 해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공고

## 지난해 졸업 백분율 점수 89.2점

외부언론 ‘학점 인플레 심각한 대학’으로 지목 … 각종 평가에도 악영향

### 대학알리미① 학점분포

이진우 기자 urua93@khu.ac.kr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4월 공시내용’이 30일 게재됐다. 공시내용은 전공·교직·교양·졸업생 성적평가 분포, 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록금 현황, 국유 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이다. 각각의 내용을 분석한다. <관련기사 4·5면>

우리학교의 지난해 졸업자 평점 평균이 4.3점 만점에 3.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졸업 백분율 점수평균(졸업 백분율 점수)은 89.26점으로 지난해 89.16점보다 0.1점 높아졌다. 지난해 성적 분포와 관련한 논란 이후 관련 통계에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2012년 이후 계속 상향추세인 점을 확인하게 됐다. ‘학점인플레이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보이는 지점이다.

졸업 백분율 점수는 우리학교와 유사한 규모의 8개 사립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중 세 번째로 나타났다. 우리학교보다 졸업 백분율 점수 평균이 높은 대학은 한국외국어대와 한양대로 각각 91.16점과 89.33점이다.

재학생 성적분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학생 B학점 이상 취득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대(82.9%)에 이어 우리학교가 81.4%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B학점 이상 취득 비율은 지난해 2학기 기준 ▲전공과목 80.4% ▲교양과목 80.5% ▲교직과목 96.7%였다. 같은 해 1학기나 지난 학기들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당장 언론에서는 우리학교를 ‘성적 인플레가 심각한 대학’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우리학교에 영어강의, 실

험·실습, 군사학, 교직 등의 절대평가 수업이 절반 가까이 된다”며 “이런 과목에서 학점이 상향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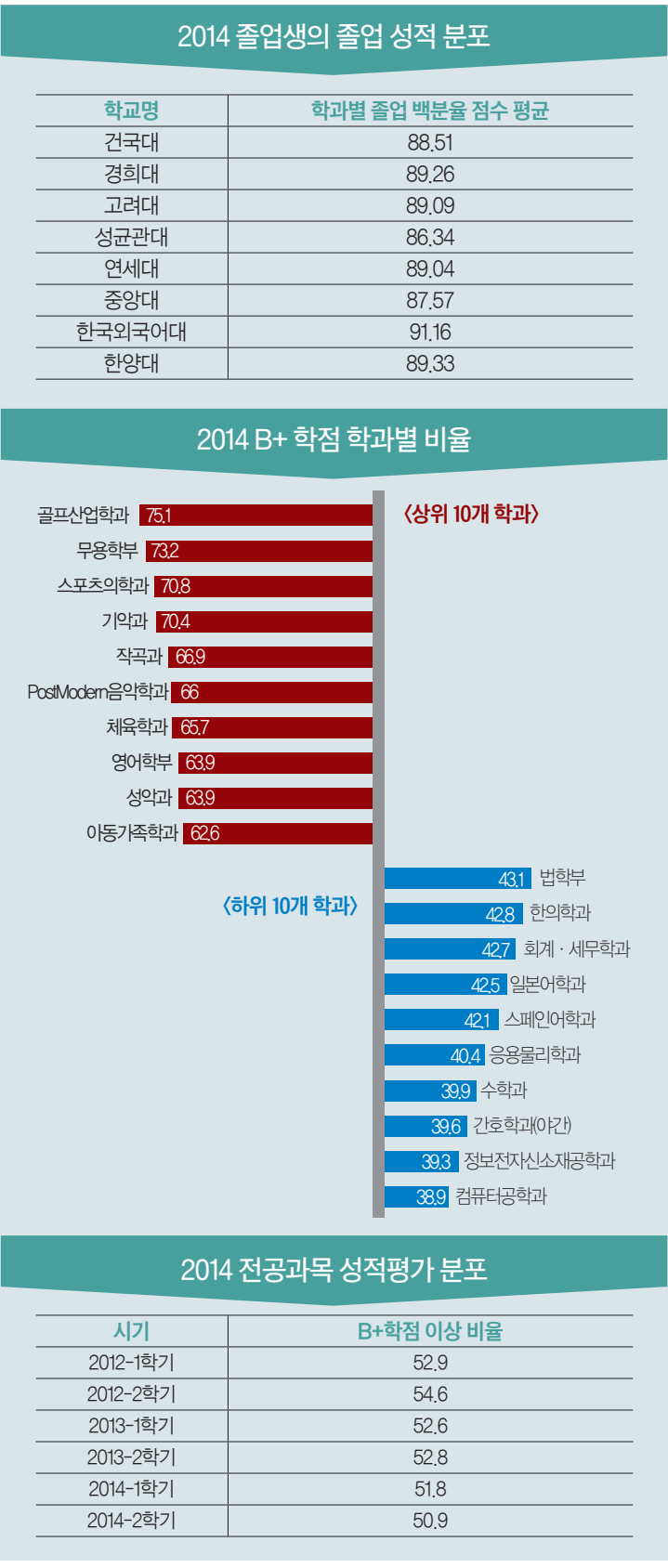
특히 우리학교의 성적평가제도에 따르면 상대평가의 경우 B+학점 이상은 40%의 학생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4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전공과목에서 B+ 이상 학점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에서 B+ 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이 높은 학과를 현황 학사제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대체로 예·체능계열의 학과들이 상위로 꼽혔다. 골프산업학과가 75.1%의 비율로 B+ 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무용학부, 스포츠의학과, 기악과, 작곡과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B+ 이상 성적을 받는 비율이 가장 낮은 학과들은 이·공계열이었다. B+ 이상 성적을 가장 적게 주는 학과는 컴퓨터공학과였다. 뒤를 이어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간호학과(야간), 수학과, 응용물리학과 등이었다.

이밖에 교양과목의 경우 47% 정도의 학생이 B+ 이상의 성적을 받았고, 교직이수 교과는 90%가 넘는 학생에게 B+이상의 성적을 부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대학교구조개혁 면점평가가 시작된 상황에서 학점 분포로 인한 평가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평가지표가 조정됐지만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 여전히 4점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 팀장은 “대학교구조개혁 인터뷰 평가에서도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표면적으로는 성적 관련 내용을 평가요소에 넣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면으로 이어짐



### Newsmaker

제1회 서울상상마당 금상 수상  
이은주(행정학 2012) 양



## 한 장 티켓으로 여러 박물관 자유 이용 상상 속 ‘뮤지엄패스’, 현실로 도전하다

이만교 기자 mingyo@khu.ac.kr

서울시에 위치한 국·공립박물관이 20개, 사립박물관이 77개, 미술관은 34개다. 사설 갤러리는 셀 수 없이 많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좋아하는 이은주(행정학 2012) 양에게는 행복한 도시다.

그는 “박물관이랑 미술관은 날이 덥거나 추울 때도 갈 수 있고, 영화나 공연처럼 시간을 일부러 맞출 필요도 없다”며 “또한 같은 작품도 처음 볼 때와, 여러 번 볼 때마다 느끼는 감상이 다르다”며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아이디어는 다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제1회 서울상상마당 자리까지 이끌었다. 서울상상마당은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 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반응이 높았던 것을 두고 담당공무원과 전문가가 토론하는 행사다. 결국 6개의 아이디어 중 이 양의 것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 ‘금상’까지 타게 됐다. 이 양은 “대단한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도한(행정학)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런 그에게 우리학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물었다. 그는 “‘왜 시민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에 많이 가지 않을까?’를 고려해보면 좋겠다”며 “관람객들의 여건상 평일에 시간을 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한달에 한 번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시간을 늦게까지 진행하는 ‘Museum Night Day’를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미술관과 박물관 생각으로 가득한 그의 진로가 아직 명확해진 않다. 이 양은 “기회가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행정인이 되고 싶다”라고만 말했다.

그의 미래는 아직 상상 속인 셈이다. 그렇지만 뮤지엄패스처럼 그의 꿈도 ‘현실’이 되리라 믿는다.

## 보이지 않는 문 - 도의 나들목

###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㉔

홍승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도덕경》은 인생론, 사회정치론, 우주론을 변주하는 철학시(哲學詩)다. 사람들은 있음(有)만을 추구하고 없음(無)은 애써 없애버린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은 별개의 것, 모순 관계가 된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이 하나의 혼재(混在)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무슨 색깔을 띠고, 무슨 소리를 낼까? 《도덕경》은 그것이 가물가물(玄)한 색깔을



띠고, 무언의 말을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만물의 온갖 묘함(본연의 상태)을 낳는 문이며, 이런 이치를 관조하는 것이 ‘밝음(明)’이라고 말한다.

한다.

《도덕경》에서는 다차원의 ‘문(門)’을 언급한다. 우주가 생겨나는 문,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흘러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한다. 그 문은 형체가 없기에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천지만물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이 ‘문 아닌 문’에는 빛장이 없지만 역지를 부리면 닫혀버린다.

그것이 생활 주변의 기물에 비유된다. “문을 내고 창을 뚫어 집을 만드는데, 그 빈 곳에 집의 쓰임새가 있다. 그러므로 있게 함은 이로움이 되고 없게 함은 쓰임새가 된

다.”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없게 할 때 그 이로움과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사람에게도 문이 있다. 《도덕경》에서는 ‘자(自)’자를 수없이 사용하는 가운데 ‘자연(自然)’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자는 ‘스스로’, ‘저절로’, ‘자기’ 등을 뜻하는데, 이것이 본래 가리키는 것은 사람의 코이다. 코란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교체 순환하는 곳이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하는 빈 통로가 코, 곧 ‘천문(天門)’이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특별기고

클라우드 컴퓨팅  
허의남 (컴퓨터공학 교수) >> 7면

